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42, 1-4.6-7

[화답송] 시편29(28), 1, 2, 3, 4, 5, 6, 7, 8, 9, 10 (©11)

-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제 2독서] 사도10, 34-38

[복음 환호송] 마르9, 7참조

-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태3, 13-17

모두 만원의 가치를 가진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사람들도 살면서 자주 구겨지고 닳고 찢어지고 찢기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모욕을 당합니다.



성가	8시 미사	입당 1	봉헌 210 220	성체 163 169	파견 479
	11시 미사	입당 1	봉헌 210 220	성체 163 169	파견 479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주님세례축일(1월 12일)		연중 제2주일(1월 19일)		연중 제3주일(1월 26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엘리사벳(자영)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최분도(환준)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이바오로(명국)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최분다(수영)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세례의 축복

제가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시나요? 네, 정말로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요즘 들어 만사가 왜 그리도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전에도 간간히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었지만 요즘 들어 부쩍 감사의 마음이 자주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큰 감사는 무엇보다 **하느님을 알게 되고,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리 새삼스럽게 감사할 일이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인지 모릅니다. 만일 제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주교 신자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충만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놀라운 체험을 하십니다. 첫째,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마태3, 16) 둘째,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 오시는 것을 보셨고**” (16c) 셋째,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7)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통하여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아버지 마음에 드는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으셨으며, 이 깨달음은 예수님의 삶을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분은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시고**” (이사20,4) “**하느님께서 성령과 힘을 부어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

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사도10,38)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에 그 소중함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절대로 후회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의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3, 17)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를 내어 언제나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굳게 결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아멘.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 속에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는 명동에 살고 있습니다. 명동거리는 가게마다 물건을 팔기 위해 큰소리로 노래를 틀거나 여러 가지 선전을 해대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화조차 하기 힘듭니다. 부디 살면서 작은 소리라도 의사전달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렸던 자연의 소리들을 다시 들으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빗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풀벌레 소리, 눈이 쌓이는 소리, 꽃이 피는 소리까지... 인간의 고향이 멈추고, 이런 소리들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소리도 함께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갈대가 부러졌어도 꺾어버리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겨야 살아남는 세상, 경쟁에서 뒤지면 누구라도 노숙자가 될 수 있고 잊혀야 하는 세상,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든 세상, 때론 가까운 사람마저도 적이 되어버리고, 빈민들에게는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던 삶의 여유는 어디 갔습니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고 사랑의 대상은 결국 다른 사람들인데, 혼자 살아남는다면 사랑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의 시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느님의 측은지심이겠지요.

세 번째,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지치고 기가 꺾여 용기를 잃는 일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공정을 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한 절망과 좌절의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사상, 그리고 빈부의 격차 때문에 생기는 무서운 테러와 전쟁,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허락하지 않는 선진강대국들의 견제구조, 그로 인해 생기는 국가 차원의 우울증과 정신질환, 그리고 수많은 자살과 범죄들. 희망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원하십니다. 기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바른길을 가라고... 개개인의 성실과 정직이 거대하고도 불의한 세상의 폭력을 끝내는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느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한 분 계시지요.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길이 이제는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입니다. 겸손하고 조용하지만, 연민과정이 가득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그 인생길, 그 길이야말로 지금의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무정하고도 절망스럽기까지 한 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길입니다.

고찬근 신부  
명동대성당 주임



삶은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신을 구원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웃으면서 자신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글\_야고보 알베리오네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세례 못 받겠어요” “순교 못해요”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인간으로 거듭남을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시고 ‘치유자’의 모습만 보여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복신앙으로 기우는 인간의 본성을 자제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해화동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친구의 말이 너무 좋아서, 365일 새벽 미사를 다니며 360개 교리 문답을 달달 외워 세례 준비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천작쟁이는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랑방에 가시어 “승님이 세례를 받으면 애비가 온대요.” 하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셨고 “승님이 혼사는 내가 종매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묵인하셨습니다.

교리를 가르쳐 주신 수녀님은 가정 방문을 열 번도 더 오시어 “꼭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해야 한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 신자하고 연애해라.” 라는 말을 들으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4남 2녀의 다섯째인 저는 죄질일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녀님께 가서 “저는 세례를 받고도 또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을 용기가 없어요.” 했더니 수녀님께서 “죄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지어도 돼. 늘 회개하면 하느님이 반기신단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설마 칠 곱하기 칠십 번이나 죄를 짓지는 못하지.’ 하고는 세례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근심이 생겼습니다. 납북된 아버지를 뵙고 싶은데, 혹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공산당은 천주교를 싫어하고, 그러면 순교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수녀님께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자 수녀님께서 “순교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오는것이 아니야. 순교는 은혜란다. 은혜를 받으면 기쁘게 순교할 수 있어.”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저는 베로니카 수녀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

년 어린아이에게 심오한 진리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도우시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느님께서 늘 보고 계시다는 것이 순간순간 힘이 되었습니다. 일이 잘되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되면 하느님이 창피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며 절로 힘이 났습니다.

납북된 아버지를 그리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연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분을 만났고, 안부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세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홍성임 수녀  
투스핑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서울 수도원

+ 목자의 소리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  
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 12,46)

왜냐하면

그 빛은 지지 않는 새벽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빛」 1항

가톨릭전례

“그리스도인의 삶” 1

1.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사도신경의 이 첫 문장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주춧돌입니다. 또한 이 창조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됩니다.

-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 (골로 #1:15)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01항).

인간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닮게 창조되었기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웃들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성과 자유의지의 능력도 선물 받았기에, 이성을 통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깨달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참된 선을 향하여 스스로 나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2. 존엄성을 잃어버린 인간

인간은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피하라”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한 자유의지가 있기에 선을 실행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청소년 상담사가 하루는 청소년 한 명이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를 중퇴하고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오토바이로 폭주족 흥내를 내다가 넘어져 크게 다친 것입니다. 상담사는 “너 이러다가 죽어”라고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슬픈 표정으로 “넵주세요. 이러다 죽을래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해야 함을 압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자신의 존엄성을 깨달을 때 강화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공부도 못하고, 부모의 돌봄도 부족한 아이는 자존감을 갖기 힘들고 따라서 선을 실행할 자유의지의 능력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자캐오는 그릇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기에 부자이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자캐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했습니다.

다.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기피하던 자캐오의 집에 흔쾌히 방문하심으로 자캐오에게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훼손된 자캐오의 내면에서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존엄성을 발견해 내셨던 것입니다. 자캐오는 예수님의 따뜻한 도우심에 힘입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이처럼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능력을 얻어 변화되며, 올바르게 행동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지니게 된다. 제자는 자신의 구세주와 일치함으로써 완전한 사랑과 성덕에 이른다. 은총으로 성숙해진 도덕적 삶은 하늘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난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09항).

“그리스도인이여, 그대의 품위를 깨달으십시오. 이제 그대는 천주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 타락한 과거 생활로 돌아가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어떤 머리에 속해 있는지, 어떤 몸의 지체인지 명심하십시오. 그대는 어둠의 세계에서 벗어나 빛과 하느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성 레오 교황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날짜	지향	봉헌자
1월 12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박돈보스코	박데레사
	생 손자/손녀들	박데레사
	생 한수산나	김유뤼다
	생 오골롬바(옥실)	김아네스(옥순)
	생 찬미성가대	유리디아
	생 정스텔라(애리)	김로사리아(경숙)
	연 김베드로(영길)	전례성가대
1월 14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양마리아(석순)	채토마스
1월 15일 수	생 송프란치스코	가족
	생 송미카엘(인근)	송아가다
	생 채헬레나	채토마스
1월 16일 목	생 조엘리사벳(영순)	채토마스
1월 17일 금	생 정안드레아(일양)	채토마스
1월 18일 토	생 이카타리나(영순)	채토마스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69	242	-	311
헌금	\$497	\$1,348	-	\$1,845

< 교무금 > \$7,277.08

최재준(9-11/13) 조상희(1) 김용재(1-12) 서춘애(1)  
 정병구(1-2) 정지문(1-2) 정경희(1) 김상실(1-2)  
 채용분(1) 김옥녀(1) 송분학(1) 신기수(1-2)  
 이현옥(7-12/13) 소명환(1-2) 김영희(1) 최윤기(1)  
 황정기(1-6) 최순일(1) 김철우(1) 박일신(1)  
 허동원(1) 조우송(1) 황정희(1) 육승주(1)  
 차영화(11-12/13) 이명란(1) 천종욱(1) 정진희(1)  
 김명환(12/13) 이기하(1-12) 이선희(1) 전문자(1)  
 심재구(1)

< 성소후원금 > \$470

서춘애(1) 정병구(1-2) 채용분(1) 송분학(1)  
 소명환(1-2) 최윤기(1) 차영화(12/13) 이명란(1)  
 박일신(1) 이기하(1-12) 정진희(1) 이선희(1)

< Bishop's Appeal > \$655

조상희(1-12) 서춘애(1) 최윤기(1) 김철우(1-12)  
 이기하(1-12)

< 감사헌금 >

이기희 \$100 김유현 \$1,000 이현옥 \$1,119.84

< 천주성모대축일 > \$1,702

~~~~ 오늘의 간식은 김원덕 시몬/안젤라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 구정합동위령미사 : 1월 26일(주일) 교중미사 중 미사봉헌을 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 8시 아침미사 있습니다.
- ◆ 주님 봉헌축일 초 봉헌 : 2월 2일(주일) 교중미사 중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할 초 및 기타 전례 용품을 봉헌해 주십시오. 개인 기도초도 함께 축성합니다.
- ◆ 2014년도 교무금을 약정하시어 친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 신임 사목위원 및 단체장/구역장 임명식  
1월 12일(오늘) 교중미사 중
  - 전례부장 : 허홍숙 세실리아, 차장 : 김승모 스테파노
  - 시설관리부장 : 최대연 다니엘
  - 성모회장 겸 여성평협회장 : 장희숙 루시아
  - 프락회장 : 이상준 스테파노, 객재화 다미아노, 안해준 야고보
  - 6 구역장 : 이경란 베로니카
  - 7-2 구역장 : 정경희 카타리나
  - 8-2 구역장 : 문아영 유스티나
  - 10 구역장 : 윤정 루시아, 부구역장 : 구창희 미카엘
  - \* 그 외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 ◆ 2차 헌금 안내  
1월 19일(다음 주) : Seminary(신학교) 후원
- ◆ 모임
  - \* 프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구역장회의 : 1월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서예교실 : 1월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독서클럽 : 1월 12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이번 달 도서 : 아주 특별한 순간(Fr. 안토니오)
  - \* 뜨개질사랑회 : 1월 19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본당 ME 모임 : 1월 19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사목총회  
1월 19일(다음 주) 교중미사 후 친교실  
사목위원 부장/차장 및 각 단체장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십시오.

| 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3-5장 |             |          |
|--------------------|-------------|----------|
| 2 구역               | 1월19일(일) 6시 | 이규주 시몬 덕 |
| 7-1 구역             | 1월18일(토) 2시 | 파운더스 롬   |

- ◆ 울뜨레야 모임  
1월 16일(목) 저녁 미사 후 106호실  
- 2013년 결산 및 2014년 사업계획 보고
- ◆ 길잡이 학교 4기 수강생 모집  
대상 : 관심 있는 꾸르실리스따 모두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북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문의 : 한요셉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 ◆ 서중부 남성 제 11차 영어권 꾸르실료 봉사자 모집  
일시 : 2014년 6월 26일 ~ 29일  
장소 : Holy Redeemer Center, Oakland  
\* 북가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영어권 꾸르실료입니다. 남성 꾸르실리스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창용 레이몬드 510-688-0157
- ◆ 세금보고 자료를 신청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 ◆ 성당 마스터 키를 반납하실 분은 사무실에 반납하여 주시고 보유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 주십시오.
- ◆ 성경쓰기 노트를 상품과 함께 사무실에서 찾아 가십시오.
- ◆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셨던 회계장부를 사무실에서 찾아 가십시오.
- ◆ 연도 안내 - 교중미사 후 친교실  
1월 12일(오늘) 김은수 로사 자매님 부친 선종 (김영길 베드로 형제님)  
1월 19일(다음 주) 임재선 그레고리오 형제님 1주기

| 주일학교 소식                        |
|--------------------------------|
| - 1월 19일 : 개학(방학동안 영어미사 없습니다.) |

| 안국학교 소식                 |
|-------------------------|
| - 1월 18일 : 마틴 루터킹 데이 휴강 |
| - 2월 1일 : 설 행사          |